

## HEADLINE NEWS

### 성공적인 시간대별 가변 혼잡통행료 제도 시행 (플로리다: 리 카운티)

미국 플로리다주 리(Lee) 카운티 지역의 주요 교량 2곳에서는 시간대별 가변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해 현재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다. 「LeeWay」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첨두시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비(非)첨두시간대(주중 오전 6:30~7:00, 9:00~11:00, 오후 2:00~4:00, 6:30~7:00) 통행차량의 통행료를 50%까지 할인함으로써 차량의 교량 이용 시간대 분산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이 제도에 따라 통행료 지불방식도 요금정산소를 폐쇄하고 전자통행료 징수시스템을 활용토록 변경됨으로써 요금징수에 따른 혼잡이 감소했다. 운전자는 통행료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 사전에 전자요금카드를 구입해 차량에 부착해야 하는데, 현재 95,000여대의 차량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미 연방 도로국의 'Value Pricing Pilot'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998년에 처음 시행되었으며, 지금까지 운전자들은 250만 달러에 이르는 통행료 할인혜택 및 교통지체 감소효과를 얻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www.dot.state.fl.us/trafficoperations/ITS/ITSDeployment/Newsletter/issues/Nov04.htm#ITSFL)

## HIGHLIGHTS

### 도시관리

- ① 주민과 주택 구매자를 위한 온라인 GIS 시스템 구축 (볼티모어)

### 도시환경

- ② 「음식점 쓰레기 재활용 프로그램」 확대 시행 (샌프란시스코)
- ③ 열병합발전으로 에너지 절감과 환경보전 추진 헬싱키
- ④ 풍력발전 건설로 환경도시 만들기 착수 (가와사키)

### 도시교통

- ⑤ 대중교통 운영상황 시민감시단 활동 개시 (워싱턴D.C.)
- ⑥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를 위해 교통지도 보완 요구 (보스턴)
- ⑦ 청년층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운전 교육프로그램 개발 (토론토)
- ⑧ 주민주도형 'Car sharing' 제도의 확대 (사이타마)
- ⑨ 대중교통시스템의 보안 강화 조치 시행 (미국 전역)

### 사회복지문화

- ⑩ 음식 안전검사에 통과한 음식점에 식별표지판 부착 (스톡홀름)
- ⑪ 박물관 입장료 폐지 확대 (스톡홀름)

### 행재정

- ⑫ 여행자용 관광안내창구 129개소 신설 (동경)
- ⑬ 주민정보화지표조사 결과 발표 (시애틀)

# 도시 관리/도시 환경

## ■ 세계도시동향 ■

### ① 주민과 주택 구매자를 위한 온라인 GIS 시스템 구축 (볼티모어)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Baltimore)시는 최근 온라인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 및 잠재적인 주택 구매자들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아이맵(iMap; maps.baltimorecity.gov/imap)」이라고 불리는 이 시스템은 행정구역, 근린경계, 도로망, 문화재, 학교, 공원 등의 기본적인 자료뿐만 아니라, 필지정보와 2004년 항공사진도 제공하고 있다. 필지정보는 주소, 동네 이름, 관할 경찰서 등을 비롯하여 쓰레기 수거차량의 서비스 일정까지 포함하고 있다. 시는 주민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지정보와 시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아이맵 시스템에 추가할 예정이다.

([www.baltimoresun.com/business/realestate/bal-re.mapping07nov07,1,3367934.story?coll=bal-realestate-headlines-1](http://www.baltimoresun.com/business/realestate/bal-re.mapping07nov07,1,3367934.story?coll=bal-realestate-headlines-1))

### ② 「음식점 쓰레기 재활용 프로그램」 확대 시행 (샌프란시스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음식점 쓰레기 재활용 프로그램(Restaurant Food Waste Recycling Program)」이 주의 다른 도시들로 확대되고 있다. 1996년부터 시에서 시작된 이 프로그램에는 현재 2,200개의 음식점과 75,000여가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하루 평균 300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유기농 비료로 전환되어 포도, 멜론, 당근 등 유기농산물을 재배하는 인근 농장으로 보급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1989년 州法에 의해 각 도시에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는 쓰레기의 절반을 재활용으로 전환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이 이러한 규정을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샌프란시스코시에 이어 인근도시인 오클랜드, 로스앤젤레스의 음식점, 호텔, 병원, 일반 가정들도 이 프로그램에 동참하고 있다.

([www.latimes.com/news/local/la-me-food14nov14,1,830052.story](http://www.latimes.com/news/local/la-me-food14nov14,1,830052.story))

### 3 열병합발전으로 에너지 절감과 환경보전 추진 (헬싱키)

열병합발전으로 나오는 에너지는 겨울철에는 지역난방으로, 여름철에는 지역 냉방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병합장치의 수명기간은 30~50년 정도(일반 압축시스템은 15~20년)이며 에너지 및 환경측면에서도 효율성이 뛰어나, 전통적인 에너지집약 압축시스템을 점차 대체하고 있다. 핀란드 헬싱키시는 2000년 Ruoholahti 구역에서부터 열병합발전을 이용한 지역냉방 보급을 시작하여 점차 도시전역으로 확대한 결과, 현재 시의 지역냉방 생산능력은 보급 초기보다 3배 이상 증가했고 지역난방은 시의 90% 이상 지역에 공급되고 있다.

열병합발전은 개별난방과 비교해 볼 때, 연료측면에서 30% 이상 절감효과가 있으며, 환경측면에서도 탄소산화물이 35% 이하로 방출되는 효과가 있다. 시는 열병합발전을 추진하여 먼지 방출 84%, 유황산화물 방출 74%, 질소산화물 방출은 60%까지 감소시킴으로써 대기질을 1990년대 이후 현저하게 개선시킬 수 있었다. 그 결과 시는 1990년에 'UN Environment Award'를 수상하기도 했다.

([www.hel.fi/english/current/LOW\\_HelsinkiNews\\_august.pdf](http://www.hel.fi/english/current/LOW_HelsinkiNews_august.pdf))

### 4 풍력발전 건설로 환경도시 만들기 착수 (가와사키)

일본 가나가와縣 가와사키(川崎)시는 나리타공항 근처 게이힌(京浜) 임해부에 풍력발전용 풍차를 건설할 계획이다. 시는 이산화탄소의 발생원이 되는 전력 소비를 억제하는 새로운 에너지인 풍력발전을 도입함으로써, 1990년과 대비하여 2010년까지 온난화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6% 감소시킬 예정이다. 또한 시는 5천만엔을 투자하여 東京灣의 부도(浮島) 주변 '시민공원의 숲'에 높이 17m, 직경 4.4m의 풍차 3기를 건설하여 임해부의 신명소로 육성할 계획이다. 시는 온난화가스의 90%를 차지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를 목표로 학교에 태양력 발전장치를 도입하는 등 전력소비를 막기 위한 다양한 환경대책을 추진하면서 선진적인 환경도시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경제신문, 2004. 11. 10)

### 5 대중교통 운영상황 시민감시단 활동 개시 (워싱턴 D.C.)

미국의 워싱턴 D.C. 지역의 대중교통시스템인 'Metro'를 대상으로 그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시민단체의 활동이 최근 시작되었다. 'Metro-Riders'라는 이 단체는 최근의 운행 지연, 예고되지 않은 서비스 중단, 여러 차례의 요금 인상과 같은 일련의 대중교통 서비스 불만사항이 급증함에 따라 결성되었으며, 현재 약 30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이 단체는 시민들에게 'Metro'의 운영상황, 예산집행 실태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연방정부 차원의 대중교통에 대한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연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로비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주요 정책 결정자들과 접촉하여 재정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호소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washingtontimes.com/metro/20041111-111156-4296r.htm](http://washingtontimes.com/metro/20041111-111156-4296r.htm))

### 6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를 위해 교통지도 보완 요구 (보스턴)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시의 '서머빌 건강증진그룹(Somerville Physical Fitness Group)'의 자원봉사자들은 최근 시의 지도 제작사를 상대로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교통정보를 지도에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서머빌 건강증진그룹'의 자원봉사자에 따르면, 기존의 교통지도들 대부분이 자동차 중심의 교통정보는 잘 보여주고 있는 반면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정보는 매우 빈약하거나 부정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이나 자전거 이용 인구를 위한 정보는 보도, 벤치, 자전거 도로, 자전거 주차장, 셔틀버스 정류장, 공원 입구와 산책로 등이 있으며, 기존 교통지도에 효과적으로 추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다.

([www.boston.com/news/local/articles/2004/11/15/cyclist\\_pushes\\_mapped\\_bike\\_paths/](http://www.boston.com/news/local/articles/2004/11/15/cyclist_pushes_mapped_bike_paths/))

### 7 청년층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운전 교육프로그램 개발 (토론토)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청년층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운전을 교육·홍보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최근 개발했다. 「iDRIVE」라는 이 프로그램은 특히 25세 이하 운전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자제와 조심운전을 강조하는 교육용 비디오 매체를 활용하고 있다. 이 비디오는 관련 전문가, 사회 저명인사, 대학생들과의 인터뷰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난폭 및 부주의 운전 등의 위험성을 홍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국은 이 비디오를 일선 경찰서 및 공공안전 관련기관에 배포하여 교육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ogov.newswire.ca/ontario/GONE/2004/10/26/c4740.html?lmatch=&lang=\_e.html)

### 8 주민주도형 ‘Car sharing’ 제도의 확대 (사이타마)

자동차를 공동 이용하는 ‘CS(Car Sharing)’ 제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CS’ 제도는 자동차를 다수의 세대나 회사에서 공유하는 대신 낮은 가격으로 이용하는 시스템인데, 최근 일본 사이타마(埼玉)縣에서는 단지내 주차장 부족으로 고민하는 주민들에 의해 일본 최초로 주민주도형 ‘CS’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CS’ 제도는 개인이 차를 소유하는 것보다 경제적이고 배기가스도 줄일 수 있어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용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금까지 ‘CS’ 제도는 교통정체 완화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실험적으로 이용되었지만, 도심 내에 맨션 등이 확대되면서 주차공간이 부족해지자 근처의 단시간 이용이라면 렌터카보다 저렴하다는 이점 때문에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뿌리 깊은 마이카 지향과 더불어 운영을 둘러싼 과제도 많기 때문에 보급 속도는 그리 빠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경제신문, 2004. 11. 22)

# 도시교통/사회복지·문화

## ■ 세계도시동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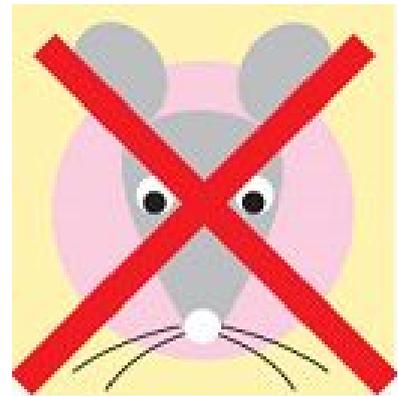
### 9 대중교통시스템의 보안 강화 조치 시행 (미국 전역)

미국 연방 대중교통국(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 및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대중교통시스템에 대한 테러에 대비해 보안 조치를 최근 강화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뉴욕에서는 「Transit Watch」라는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일반 승객들을 대상으로 수상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에 대한 신고를 당부하는 홍보를 강화했다. 또한 폐쇄회로 카메라를 확충하고, 폭발물 감지장치 등을 대중교통시스템의 주요 지점에 설치하고 있는 중이다.

연방 대중교통국은 대(對)테러 전문가를 미국 전역의 주요 도시에 파견해 해당 도시의 대중교통시스템이 갖고 있는 보안관련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고 있으며, 모범사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토안보부는 2004년 5월부터 대중교통시스템 내 일부 지점에 대해 휴지통 사용을 금지하거나, 투명한 플라스틱통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러한 보안 조치 강화를 위해 대중교통부문에만 2003년 5월부터 현재까지 약 1억1천5백만달러를 재정지원했다. ([www.forbes.com/business/2004/10/21/cx\\_sr\\_1021transit.html](http://www.forbes.com/business/2004/10/21/cx_sr_1021transit.html))

### 9 음식 안전검사에 통과한 음식점에 식별표지판 부착 (스톡홀름)

스웨덴 스톡홀름市는 시민들이 음식 안전검사(Food Safety Inspection)를 통과한 음식점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음식 안전검사에 통과한 음식점의 입구에 이 사실을 적어놓은 식별표지판을 조만간 부착할 계획이다. 또한, 음식안전기준을 철저히 이행하는 음식점에 대한 정보도 시청 웹사이트에서 소개할 예정이다. 그러나, 市의 현 규정은 비양심적인 시설에 대해 市가 명명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 제도의 순조로운 시행을 성급히 판단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www2.stockholm.se/english/pdf/CityNews\\_autumn\\_2004.pdf](http://www2.stockholm.se/english/pdf/CityNews_autumn_2004.pdf))

# 사회복지·문화/행·재정

## ■ 세계도시동향 ■

### ④ 박물관 입장료 폐지 확대 (스톡홀름)

스웨덴 스톡홀름시에 위치한 현대미술박물관, 스웨덴건축박물관, 극동고대박물관 등 각종 박물관들은 최근 입장료 수수를 폐지했다. 이러한 박물관의 입장료 폐지는 국립미술박물관, 국립고대박물관 등 시에 위치한 국립박물관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점차 모든 박물관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박물관 입장료 폐지 정책은 시민들에게 대단히 환영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람객의 수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현대미술박물관의 경우 입장료 폐지 전에는 한달에 23,000명이 관람했으나, 입장료 폐지 후에는 74,000명이 관람하는 등 입장객이 3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www2.stockholm.se/english/pdf/CityNews\\_autumn\\_2004.pdf](http://www2.stockholm.se/english/pdf/CityNews_autumn_2004.pdf))

### ④ 여행자용 관광안내창구 129개소 신설 (동경)

일본 東京都는 최근 여행자용 관광안내창구 129개소를 신설했다. 이는 都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편의성을 제고함으로써 보다 많은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관광안내창구에서는 호텔과 시·구·정·촌간의 협력을 통해 여행자들에게 인근의 관광시설이나 교통수단을 안내한다.

관광안내창구는 시·구·정·촌에 75개소, 호텔 및 여관에 26개소, 도영(都營) 지하철에 6개소, 공원 및 정원에 18개소 등이 설치되었으며,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7개 국어로 된 팸플릿 배포 및 간단한 질문시트를 상시 준비하고 있다. 都는 도청내 3개소에 관광정보센터를 운영해 왔는데, 2004년도 이용자수가 80만명을 넘을 정도로 수요가 많아 이번에 창구를 확대하게 되었다.

(일본경제신문, 2004. 11. 11)

### 주인정보화지표조사 결과 발표 (시애틀)

미국 시애틀市 정보기술부(Depart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의 지역정보화 프로그램은 「2004 주민정보화지표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00년도 조사 이후 2번째 실시된 것이다.

이번 조사는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설문 문항은 가정에서의 컴퓨터 이용, 인터넷 접속, 휴대폰 사용, 케이블TV 서비스 등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시민의 83%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83%는 가정에서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어 정보화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구의 70%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며, 가구의 2/3 정도가 케이블TV를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市는 주민정보화지표조사를 통해 정보기술에 대한 접근성, 해득력, 정보격차, 지역사회와 지역경제 개발, 시민복지서비스, 시민참여, 전자정부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올해 조사에서는 케이블 방송권을 재부여하기 위한 시민들의 수요와 의견 데이터를 얻기 위해, 특별히 케이블TV 사용과 욕구 조사에 초점을 두었다.

([www.seattle.gov/tech/indicators/2004residentialsurvey.htm](http://www.seattle.gov/tech/indicators/2004residentialsurvey.htm))